



문 7. '효녀 지은'의 행위를 나타내는 사자 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효녀 지은은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홀로 어머니를 봉양하였다. 아침과 저녁으로 문안드리며 곁을 떠나지 않았다.

- 『삼국사기』 열전 '효녀 지은'에서 -

- ① 肝膽相照                      ② 磨斧爲針
- ③ 昏定晨省                      ④ 孤掌難鳴

문 8. 높임 표현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부장님, 넥타이가 잘 어울리시네요.
- ② 어머님, 아비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 ③ 선생님, 어머니께서 위임장을 주셨습니다.
- ④ 시장님, 저에게 여쭙 보셨던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문 9.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은 항상 열 시쯤 돌아온다.
- ② 나는 사과를 천 원어치 샀다.
- ③ 그녀는 스무 살남짓 되어 보였다.
- ④ 그 일은 이십 세기경 일어난 일이다.

문 10. (가),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公無渡河  
公竟渡河  
墮河而死  
當奈公何

- 백수광부의 처, 「공무도하가」 -

(나) 대동강(大同江) 아즐가 대동강(大同江) 너븐디 몰라셔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빅 내여 아즐가 빅 내여 노흔다 샤공아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네 가시 아즐가 네 가시 립난디 몰라셔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널 비예 아즐가 널 비예 연즌다 샤공아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대동강(大同江) 아즐가 대동강(大同江) 건너편 고즐여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빅 타들면 아즐가 빅 타들면 갓고리이다 나는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 작자 미상, 「서경별곡」에서 -

- ① (가)의 화자는 임과의 동행을, (나)의 화자는 임과의 이별을 선택한다.
- ② (가)의 '河'와 (나)의 '강'은 모두, 임과 나의 재회를 돕는 매개로 설정되었다.
- ③ (가), (나)의 화자 모두, 벌어질 상황에 대해 염려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와 (나) 모두, 화자의 상대방이 보이는 반응이 희극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문 11. '곰치'의 심리로 미루어 ㉠ ~ ㉣에 들어갈 지시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부 '곰치'가 선주 '임제순'에게 진 빚 때문에 모처럼 찾아온 만선(滿船)의 기회를 놓칠까 싶어 갈등하는 상황이다.]

임제순: (발끈해서) 아니면 으짖 참이었? 이자를 생각해 봐! 놀랄 것이 못이여?

연 철: (비꼬는 투로) 놀랄 것 하나도 없지라우! 이렇게 될 줄 뻔히 알었지라우! (불같은 한숨)

임제순: 못이라고? 저놈이 어마 대고 비양질이여?

곰 치: ( ㉠ ) 알았음녀……. (연철에게) 아무 소리 말어! 다들 입을 봉해!

성 삼: 곰치! 입을 봉할 때가 따로 있어! (오기스런 안간힘)

곰 치: ( ㉡ ) 시끄러웠!

임제순: 곰치!

곰 치: ( ㉢ ) 말씀하시게라우…….

임제순: ……자네 섭섭할는지 모르겠네만은……. (강경하게)

남은 이만 원 청산할 때까지 내일부터 배를 묶겠네! 묶겼어!

성삼·연철·도삼: 배를 묶다니?

구포댁: (떨쩍 뛰며) 왔따! 큰 말씀이싱게라우? 아니 해필이면 이럴 때 배를 묶어라우? 예에?

임제순: (단호하게) 나는 두말 않는 사람이여!

곰 치: ( ㉣ ) 영감님! 배만은! 배만은!

- 천승세, 「만선」에서 -

- ① ㉠: 체념 조로
- ② ㉡: 비아냥거리는 투로
- ③ ㉢: 지친 듯
- ④ ㉣: 애걸 조로

문 12. ㉠ ~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근대 국가가 형성되면서 언어의 단일화를 이루기 위한 언어 정책이 ( ㉠ )되었다. 러시아의 경우가 대표적인데, 당시 러시아 사회는 칭기즈 칸의 침략 후 문장어와 방언 사이의 ( ㉡ )가 컸다. 포트르 대제는 불가리아 문장어를 버리고 모스크바어를 ( ㉢ )으로 한 러시아어 표준어 정책을 강력하게 실시했다. 이때부터 푸시킨을 비롯한 국민적 작가에 의해 러시아의 문예어가 발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서양에서 봉건제가 붕괴되고 민주 의식이 ( ㉣ )되면서 표준어가 결정되고 국민 문예가 성립하는 과정을 거쳤다. 한 나라의 표준어 형성, 나아가 국어의 통합은 이렇게 문예 작품의 발달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다.

- |      |    |    |    |   |
|------|----|----|----|---|
|      | ㉠  | ㉡  | ㉢  | ㉣ |
| ① 시행 | 격차 | 기반 | 고양 |   |
| ② 시행 | 편차 | 기반 | 지양 |   |
| ③ 중단 | 격차 | 방식 | 지양 |   |
| ④ 중단 | 편차 | 방식 | 고양 |   |

문 13. 다음은 신문 기사의 일부이다. <보기>를 참고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별 헤는 밤

㉡ - 울산과 부산서 11·12일 별 축제 열려 -

㉢ 11일과 12일 저녁 울산과 부산에서 가을밤 별자리를 관찰할 수 있는 축제가 잇따라 펼쳐진다.

㉣ 울산광역시와 한국천문연구원은 11일 오후 5시부터 한국우주전파관측망(KVN) 울산전파천문대에서 '울산전파천문대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별 축제'를 연다. 이 축제는 울산광역시 생활과학고교실과 한국아마추어천문학회가 주관해 2010년부터 해마다 여는, 청소년을 위한 과학 문화 축제이다. ... (하략)

- ○○신문, 20○○. ○○. ○○. -

<보 기>

신문 기사에서 '전문'은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한 부분으로, 대체로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기사 내용의 뼈대를 제공한다. 이는 본문을 요약하는 전문, 배경을 설명하는 전문, 여론을 환기하는 전문, 결과를 제시하는 전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① ㉠: 기사 내용을 요약 제시한 전문이다.
- ② ㉡: 사건의 결과와 함께 원인을 제시한다.
- ③ ㉢: 육하원칙의 몇몇 요소로 기사의 요지를 제시한다.
- ④ ㉣: 대중의 관심을 환기하는 전문에 해당한다.

문 14. 다음 시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에도 너는 온다.  
 어디 빨발 구석이거나  
 썩은 물웅덩이 같은 데를 기웃거리다가  
 한눈 좀 팔고, 싸움도 한판 하고,  
 지쳐 나자빠져 있다가  
 다급한 사연 들고 달려간 바람이  
 흔들어 깨우면  
 눈 부비며 너는 더디게 온다.  
 더디게 더디게 마침내 올 것이 온다.  
 너를 보면 눈부셔  
 일어나 맞이할 수가 없다.  
 입을 열어 외치지만 소리는 굳어  
 나는 아무것도 미리 알릴 수가 없다.  
 가까스로 두 팔을 벌려 껴안아 보는  
 너,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

- 이성부, 「봄」 -

- ① 특정한 시어를 반복함으로써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
- ② 단정적 어조로, 기대하는 대상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미래의 절망적인 상황을 단언하는 화자의 태도가 시상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 ④ 특정 대상을 인격화하여 대상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을 표현하고 있다.

문 15.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류 역사는 끊임없이 변화를 거듭해 왔다. 그 변화의 굽이들 속에서 사람들의 세계관이나 가치관 또한 다양하게 바뀌었다. 어느 세기에는 종교적 믿음이 모든 것을 지배하기도 했고, 어느 때는 이성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으며, 또 어느 시점에서는 전 인류가 기계 문명을 근간으로 한 산업화를 지향하기도 했다. 그리고 21세기가 되었다. 이 세기는 첨단 과학과 정보 통신 기술의 비약적인 발달로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변화의 진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변화된 모습이 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변화의 배경에는 늘 인간의 열망과 상상력이 가로놓여 있었다.

과학 기술의 진보와 이에 발맞춘 눈부신 문명의 진전 과정에서 인간의 열망과 상상력이 우선하였다. 과연 인간이 욕망하지 않고 상상하지 않았다면 이 문명 세계의 많은 것들을 창조하고 혁신할 수 있었을까? 하늘을 날고 싶어 하는 욕망이 없었다면 비행기는 발명되지 못했을 것이며, 좀 더 빠른 이동 수단을 원하지 않았다면 자동차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껏 상상력은 인류 문명을 가동시켜 온 원동력이었으며 현재 또한 그러하다.

그런 가운데 21세기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신과학들은 이러한 상상력의 위상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사람들이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여겨 공상 수준에 그쳤던 일들이 실로 구현되는 상황이 펼쳐지곤 한다. 3D, 아바타, 사이버보, 가상현실, 인공 생명, 유전 공학, 나노 공학 등 21세기 최첨단 과학 기술에 힘입어 상상력의 지평이 넓어졌다. 과거 시대들이 무엇인가를 상상하고 그것을 만들어 가는 기술을 개발하는 시간들이었다면, 21세기는 상상하는 것을 곧 이루어 낼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 ① 현재의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를 불변의 절대적 가치로 인정할 수는 없다.
- ② 인류 역사의 변화 과정에서 인간의 열망과 상상력이 끼친 영향이 크다.
- ③ 인류 역사의 변화 중에도 인간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실현된 세계의 모습은 변함이 없었다.
- ④ 21세기에 접어들어 과학 기술과 상상력의 위상 관계에 변화가 일고 있다.

문 16. ㉠~㉣의 한자 표기가 모두 옳은 것은?

태어날 때 자기의 얼굴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얼굴은 부모님한테서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얼굴은 재주나 체질과 마찬가지로 ㉠ 운명적으로 결정된 것이다. 누구나 맑고 아름다운 얼굴을 갖기를 원한다.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주지 못하는 얼굴을 바라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톨스토이의 ㉡ 자서전적 작품을 읽어 보면, 젊었을 때 자기의 코가 넓적하고 보기 흉한 것을 무척 비관해서 ㉢ 열세적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얼굴의 근본 바탕은 세상에 태어날 때 운명적으로 결정되지만, ㉣ 성실한 노력에 따라서는 내면을 드러내는 인상이 바뀔 수 있다.

- |   |    |     |     |    |
|---|----|-----|-----|----|
|   | ㉠  | ㉡   | ㉢   | ㉣  |
| ① | 殞命 | 自書傳 | 厭世的 | 成實 |
| ② | 運命 | 自書傳 | 鹽稅的 | 成實 |
| ③ | 殞命 | 自敍傳 | 鹽稅的 | 誠實 |
| ④ | 運命 | 自敍傳 | 厭世的 | 誠實 |

문 17. 다음 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처럼 동리자가 수절을 잘하는 부인이라 했는데 실은 슬하의 다섯 아들이 저마다 성(姓)을 달리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다섯 놈의 아들이 서로 이르기를,  
 “강 건너마을에서 닭이 울고 강 저편 하늘에 샨별이 반짝이는데 방 안에서 흘러나오는 말소리는 어찌도 그리 북곽 선생의 목청을 닮았을까.”

하고, 다섯 놈이 차례로 문틈을 들여다보았다. 동리자가 북곽 선생에게,  
 “오랫동안 선생님의 덕을 사모했사운데 오늘 밤은 선생님 글 읽는 소리를 듣고자 하옵니다.”

라고 간청하며, 북곽 선생은 옷깃을 바로잡고 점잖게 앉아서 시(詩)를 읊는 것이 아닌가.

“원앙새는 병풍에 그려 있고 / 반딧불이 흐르는데 잠 못 이루어 / 저기 저 가마솥 세발솥은 / 무엇을 본떠서 만들었나.’ 흥야(興也)라.”

다섯 놈들이 서로 소곤대기를  
 “북곽 선생과 같은 점잖은 어른이 과부의 방에 들어올 리가 있겠나. 우리 고을의 성문이 무너진 데에 여우가 사는 굴이 있다더라. 여우란 놈은 천 년을 묵으면 사람 모양으로 둔갑할 수가 있다더라. 저건 틀림없이 그 여우란 놈이 북곽 선생으로 둔갑한 것이다.”

하고 함께 의논했다.  
 “들으니 여우의 갓을 얻으면 큰 부자가 될 수 있고, 여우의 신을 신으면 대낮에 그림자를 감출 수 있고, 여우의 꼬리를 얻으면 애교를 잘 부려서 남에게 이쁘게 보일 수 있다더라. 우리 저 여우를 때려잡아서 나누어 갖도록 하자.”

다섯 놈들이 방을 둘러싸고 우루루 쳐들어갔다. 북곽 선생은 크게 당황하여 도망쳤다.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볼까 겁이 나서 모가지들 두 다리 사이로 들이박고 귀신처럼 춤추고 킁킁거리며 문을 나가서 내닫다가 그만 들판의 구덩이 속에 빠져 버렸다. 그 구덩이에는 똥이 가득 차 있었다. 간신히 기어올라 머리를 들고 바라보니 뜻밖에 범이 길목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닌가. 범은 북곽 선생을 보고 오만상을 찌푸리고 구역질을 하며 코를 싸쥐고 외면을 했다.

“어허, 유자(儒者)여! 더럽다.”  
 북곽 선생은 머리를 조아리고 범 앞으로 기어가서 세 번 절하고 꿇어 앉아 우러러 아뢰었다.  
 “범님의 덕은 지극하시지요. 대인(大人)은 그 변화를 본받고, 제왕(帝王)은 그 걸음을 배우며, 자식 된 자는 그 효성을 본받고, 장수는 그 위엄을 취하며, 거룩하신 이름은 신령스런 용(龍)의 짝이 되는지라, 풍운의 조화를 부리시매 하토(下土)의 천신(賤臣)은 감히 아랫바람에 서옵나이다.”  
 범은 북곽 선생을 여지없이 꾸짖었다.  
 “내 앞에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 듣건대 유(儒)는 유(諛)라 하더니 과연 그렇구나. 내가 평소에 천하의 악명을 죄다 나에게 덮어씌우더니, 이제 사정이 급해지자 면전에서 아침을 떠니 누가 끝이든겠느냐?”

— 박지원, 「호질」에서 —

- ① 자연의 묘사를 통해 주제를 강화하고 있다.
- ② 시를 통해 인물의 속셈을 넌지시 드러내고 있다.
- ③ 동물을 의인화하여 유학자의 이중성을 들추고 있다.
- ④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언어유희로 대상을 비판하고 있다.

문 18. 다음 중 의미 중복이 없는 문장은?

- ① 투고한 원고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 ②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길거리를 도보로 걸었다.
- ③ 요즘 남자들의 절반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 ④ 버스 안에 탄 승객은 우리와 자매결연을 맺은 분들이다.

문 19. 다음은 안중근 의사의 재판 기록 중 최후 진술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앞에서 검찰관의 논고와 변호사의 변론을 들으니, 모두들 이등(伊藤)의 시정 방침은 완전무결한데, 내가 그것에 대하여 오해를 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하는 말들이다. 이등의 시정 방침은 결코 완비된 것이 아닐진대 어찌 오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나는 이등의 시정 방침이라는 것들을 잘 알고 있으나, 이등이 한국에서 주재하며 대한 정책으로 무엇을 했는지는 자세히 말할 시간이 없으므로 그 줄거리만을 말하고자 한다. … (중략) … 이와 같이 오늘 내가 말한 여러 계급의 인사들에게 다시 물어 봐도 모두 동양의 평화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줄 안다. 그와 동시에 간신 이등을 얼마나 증오하고 있는지 그 정도를 짐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일본인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한국인으로서의 자기의 친척과 지기(知己)의 죽임을 당하는 마당에 어찌 증오해 마지않을 수 있겠는가. 따라서 내가 이등을 죽인 것도 전에 말한 바와 같이 의병 중장의 자격으로 한 것이지 결코 자객으로서 한 것은 아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친선을 저해하고 동양의 평화를 어지럽힌 장본인은 바로 이등이므로, 나는 한국의 의병 중장의 자격으로서 그를 제거한 것이다.

- ① 안중근 의사는 검찰관의 논고를 듣기도 전에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 ② 안중근 의사는 이등을 제거한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시인하고 있다.
- ③ 안중근 의사는 이등의 시정 방침이 완벽하지만 동양 평화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 ④ 안중근 의사는 여러 일본인의 의견을 언급하면서 이등을 제거한 행위의 정당성을 역설하고 있다.

문 20.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음 세대에 자신의 모어(母語)를 전달하지 않고자 하는 행위를 ‘언어 자살(language suicide)’이라고 한다. 언어 자살은 명백한 외부의 강압이 없으며 비교적 단기간에 집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가령, 멕시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토토낙어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취하지 않고 지역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는데도 이 지역 사람들은 모어 대신 스페인어를 사용했다. 이러한 언어 교체 현상을 멕시코 정부가 부추겼다고 보기는 어렵다. 연구에 의하면 언어 자살은 ‘정체성 상실, 사회 붕괴, 세대 간 문화적 연속성의 결여’ 등이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는 원인이자 결과이자 배경이다. ‘나는 부모님들처럼 이렇게 살지는 않겠어.’라는 집단적 자각이 한 세대로 하여금 단체로 모어 사용을 그만두게 할 수도 있는 셈이다.

- ① 서구 열강들의 식민지 지배 전략 가운데 언어 말살 정책은 언어 자살 현상의 대표적 사례이다.
- ② 모어를 계승하려는 언중의 의지가 언어 자살 현상의 발생 가능성에 변수가 될 수 있다.
- ③ 멕시코 정부의 공식적인 언어 정책이 특정 지역의 언어 교체 현상을 유도했다고 보기 어렵다.
- ④ 부모 세대와 다르게 살겠다는 자식 세대의 집단적 자각은 언어 자살의 원인이 될 수 있다.